

테일러드 칼라의 생산업체용 패턴과 교육용 패턴의 비교연구

신장희* · 손희순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Comparative study of productive pattern and educational pattern of tailored-collar

Shin, Jang-Hee* · Sohn, Hee-Soon

D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As the modern society has become highly industrialized and functionalized, the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has become brisk and extensive, and the studies of jackets which can satisfy the functions and designs for various activities have become important. Especially in the tailored collar which is the typical collar for female jackets, the studies such as scientific original form design, and design evaluation through analyzing functionality and sensitivity and others must be systematically carried out.

In this study, therefore, the objective was placed in examining the actual state of the production of the tailored collar in the field of production first, and inquiring the general theories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ailored-collar and production methods by analyzing it and comparing it with the educational tailored-collar production methods.

First, in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collar and the length of the backside neck of the bodice, in most cases, they were employing the method to enlarge the length of the backside neck of the bodice by shortening the length of the neck-base girth. That is, they were processing in order that the self collar band inside of the roll line and the fall of the collar can make a soft curved line.

Second, when producing tailored-collar patterns, it is desirable to vary the inclination according to the breath of the collar or thickness of the fabric because the stability of the inclination of the collar differs depending on the condition the collar is set, the girth of the collar edge. the broader the breath of the collar becomes, the thicker the fabric becomes, and the more the cloth is against the col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inclination larger.

Corresponding author: Shin, Jang-Hee, Tel.+82-2-710-9461, Fax.+82-2-710-9461
E-mail: tanppo@hanmail.net

Third, in the size relation between the upper collar and under collar, when sewing collars, it becomes thick and stabilized as it goes from the part in which extra pieces were put to the part in which extra pieces are not put. So you must make the upper collar larger by putting in extra pieces. The amount to be put in differ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Key Words : tailored collar(테일러드 칼라), neck-base girth(목밑둘레), collar edge(칼라외곽둘레)

1. 서론

남성적인 재킷이 본격적으로 일반 여성층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기 시작한 20세기 초부터이다.¹⁾ 현대 여성 복식은 여성 해방운동, 유니섹스, 에로티시즘, 기성복화, 의복평준화 현상으로 인해 불편하고 비실용적이던 과거의 의복형태에서 벗어나 활동과 기능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두드러짐으로써 의복을 통한 남녀 간의 성차가 없어지고 연령차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복식의 기능화요인에 따라 원래 남성복에 그 기원을 둔 재킷은 여성에게도 받아들여져 널리 착용되었고 신사복 칼라로 여겨지던 테일러드 칼라도 자연스럽게 여성복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테일러드 칼라는 신사복 칼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18세기 프랑스 혁명 후 처음으로 남성복에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테일러드 칼라는 남성복 정장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V존의 라펠이나 싱글여밈, 더블여밈 등 여밈의 위치와 종류, 라펠의 모양과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한 실루엣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복 정장 뿐 아니라 캐주얼한 의복에도 자주 사용되는 칼라이다.²⁾ 이것은 몸판에 이어진 라펠과 따로 분리된 윗칼라로 구성되어 있고 라펠과 윗칼라 이음부분의 모양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되지만 이에 관계없이 신사복 타입의 칼라는 모두 테일러드 칼라라고 부르고 있다.³⁾ 국내에서는 서양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한 이후로 우리의 신체에 적합한 의복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체형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의복 제도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킷은 대부분의 경우 가장 외부에 입는 의복이므로 어떤 제품보다도 맞춤새가 중요하다.

재킷의 제도 시 여유분뿐 아니라 디자인에 관계되는 항목으로 깍임선의 위치, 칼라의 위치, 라펠크기의 분량, 단추의 수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미적인 요소로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률적인 가이드가 없어 제도자의 임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초보자인 경우에는 정확한 치수와 위치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좋은 칼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칼라의 기본구조를 잘 이해하고, 칼라와 깊은 연관이 있는 목과 어깨의 인체부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칼라패턴에 적절히 응용해야 한다.⁴⁾ 즉 인체의 크기 및 형태와 패턴과의 관계, 디자인과 패턴의 도학적 관계, 소재의 물리적 성질 및 봉제 방법과 패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⁵⁾

특히 여성테일러드 재킷은 남성의 테일러드 재킷에 비해 유행의 경향도 많이 바뀌고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점의 보완이 요구되며, 테일러드 칼라의 기능적이고 미적인 설계를 위해 과학적인 설계법과 그 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테일러드 칼라에 관한 연구로는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⁶⁾,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⁷⁾⁸⁾⁹⁾, 신체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¹⁰⁾, 의미미분 척도개발 연구¹¹⁾, 소재별 패턴연구¹²⁾, Marking 효율성에 관한연구¹³⁾, 등이 있는데, 대부분 시각적 평가나 선호도에 관한 연구로 생산업체의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방법이나 패턴비교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제작방법에 대한 검토 및 보다 적합한 테일러드 칼라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적으로 생산현장의 테일러드 칼라 패턴제작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교육용 테일러드 칼라 패턴제작방법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테일러드 칼라의 구성요인과 제작기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어가는 의류소재와 디자인의 변화에 맞추어 의복구성학 교재내용의 보완과 함께 현장적응력이 높은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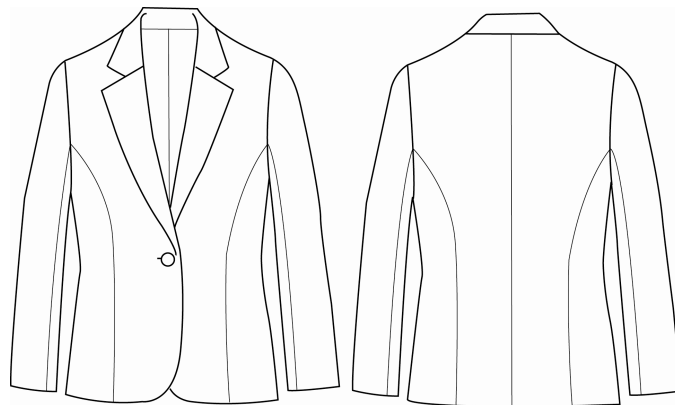
1. 기본 테일러드 칼라 재킷선정

기본 테일러드 칼라 디자인 선정을 위하여 현재 대학 및 패션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임원자의 ‘의복구성학’과 강순희의 ‘의복의 입체구성’을 참고로 하였으며, 시판되고 있는 테일러드 재킷의 깍임선의 위치, 고지라인, 라펠의 넓이 등을 참고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일러드 칼라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테일러드 칼라의 기본 디자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 교육용 교재 선정 및 생산업체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장에서의 여성복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 봉제방법을 대학과 패션관련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일러드 칼라제작법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현재 출판된 25권의 의복구성학 교재를 분석하였다. 의복구성학 교재는 크게 의류 아이템별로 제도만을 설명하는 방식, 제도 후 아이템을 재단, 봉제까지 설명하는 방식, 아이템별로 봉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1> 선정된 재킷디자인

<표 1> 교육용 교재¹⁴⁾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A	의복구성학	임원자	교문사	1995개정
B	의복구성학	김은경 · 김옥경	학문사	1999년
C	서양의복구성	오선희	예학사	2000년
D	서양의복구성학	조차 · 박채련	교학연구사	2000년
E	의복의 입체구성	강순희 · 서미아	교문사	2002년
F	의복구성	이병홍 · 최영순	교학연구사	2002년
G	서양의복구성의 실제	권영자 · 권순정 · 정은아	미진사	2003년

테일러드 칼라는 패턴제도법에 따라 ease를 처리하여 주는 봉제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교재 중 기본 테일러드 칼라 재킷의 패턴제도방법 뿐만 아니라 재단 및 봉제 방법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교재 7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재목록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생산업체로는 SISLEY, it MICHAA, B · ART, 이원재, ELLE, 김영주, banila b 등 7개 여성복 생산업체이며, 자료 수집은 2008년 5월 조사자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 및 봉제방법, 디자인적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패턴사로부터 테일러드 칼라에 관한 자료 및 패턴을 수집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패턴제작을 한 후 대학 교재용 패턴구성법과 비교하여 구성요인에 따른 제작기법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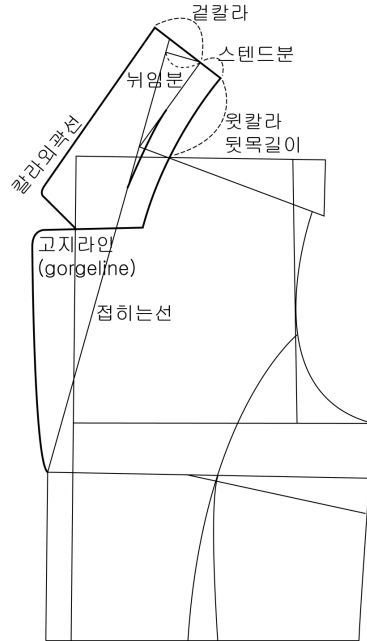
1. 칼라의 구성

테일러드 칼라의 기본적인 제작 순서로는 먼저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정하고 스텐드분과 연결한 후 칼라의 너비와 폭을 설정, 라펠라인을 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테일러드 칼라의 구성 및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윗칼라와 몸판 뒷목길이의 관계, 스텐드분, 뉘임분, 고지라인(gorgeline), 접히는 선, 브레이크포인트 등이 있으며 각 부분의 명칭은 <그림 2>와 같다. 기본형 테일러드칼라는 몸판에 이어져서 재단되는 라펠과 <그림3>의 윗칼라로 구성되며, 윗칼라는 겹칼라와 안칼라 2장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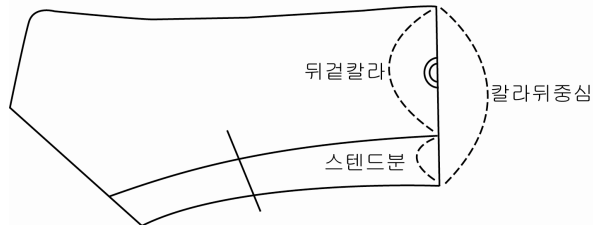
2. 윗칼라 뒷목길이와 몸판 뒷목길이의 관계

테일러드 재킷의 윗칼라 뒷목길이와 몸판뒷목길이 관계에서는 윗칼라 뒷목길이치수를 인위적으로 짧게 해서 봉제 시 몸판 뒷목길이 만큼 늘임 하여 줌으로서 꺾임선 안쪽의 밑칼라와 보여지는 겉면의 윗칼라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게 한다. 따라서 윗칼라의

뒷목길이를 0.5cm정도 짧게 해서 축융을 이용해 칼라를 늘려 몸판에 자리 잡게 한다.



<그림 2> 칼라의 부위별 명칭



<그림 3> 윗칼라 명칭

생산업체의 패턴사를 대상으로 한 칼라제작방법에 대한 조사의 결과, 7개 업체 중 6개의 업체에서 '윗칼라의 뒷목길이를 짧게 하여 몸판 뒷목길이 만큼 늘임'하여 주는 방식으로 칼라를 제작하고 있었다. 즉, 칼라 꺾임선 안쪽의 칼라 밑과 보이는 겉면의 칼라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의류제조업체에서는 윗칼라를 뒷목길이에 맞추어 목밑둘레를 대체로 늘리는 방식

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위치는 목밀의 곡선이 심한 목연부분을 잘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그 양은 소재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패션관련 교육기관 교재의 경우 모두 몸판 뒷목길이와 윗칼라 목밀둘레 치수를 같은 치수로 두고, 윗칼라와 몸판 뒷목부분의 길이 관계를 패턴제도 시 설명하고 있지 않았으며 봉제 시에도 늘임이나 줄임에 관하여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재에 나와 있는 테일러드 칼라 제도 및 봉제방법에는 의류제작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생산 현장과는 제작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3. 라펠안단 재단법

대부분의 생산업체에서는 겹 라펠이 되는 안단부분에 0.3~0.5cm정도의 여유를 주고 있었으며, 라펠 끝을 지난 몸판 끝은 동일한 넓이로 처리하여 넘기고, 천의 두께에 따라 그 양을 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펠을 구성하는 안단의 재단은 칼라와 마

찬가지로 안라펠이 되는 길과 연결된 부분은 기본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겹라펠이 되는 안단부분은 라펠이 넘어가는데 필요한 여유분을 주어야한다. 겹라펠이 되는 안단에 여유분을 주면 라펠이 잘 꺾이고 안정감이 있으며, 봉제선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패션관련 교육기관 패턴 7권 중 3권의 교재에만 재단부분에서 안단에 0.3~0.5cm여유분을 주고 있었고 소재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4권은 봉제부분에서도 라펠이 넘어가는데 필요한 여유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4. 겹칼라와 밀칼라의 크기관계

칼라봉제 시 여유분을 넣은 쪽에서 넣지 않은 쪽을 향해 굴러지며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약간 키우면 칼라가 꺾임선에서 잘 꺾이고 밀칼라가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겹칼라 쪽에 반드시 여유분을 넣어 크게 제작해야 하며 여유분량은 소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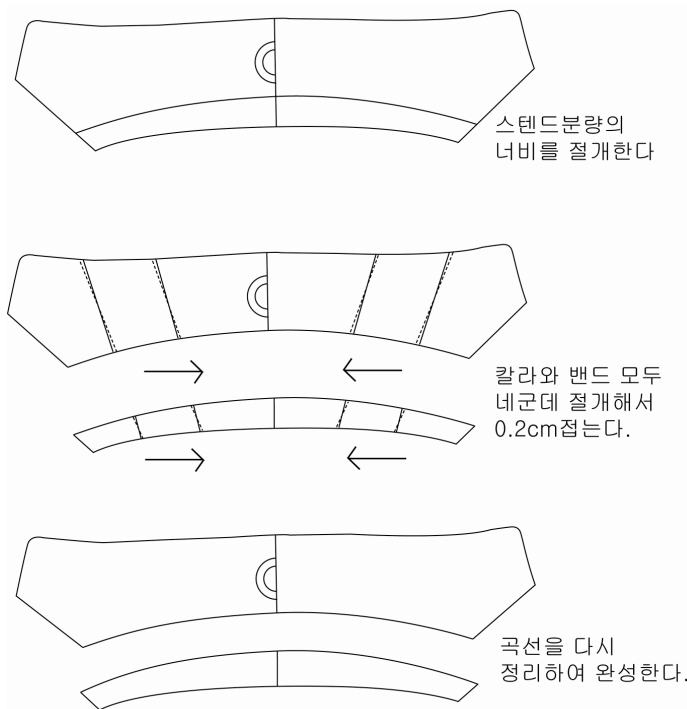
<표 2> 교육용패턴과 업체패턴 칼라비교

패턴	제도방법	몸판 뒷목길이와 윗칼라 뒷목길이 차이(cm)	라펠 안단과 몸판의 크기차이(cm)	겹칼라와 안칼라의 크기차이(cm)
교육용 패턴	A	0	0	봉제 시 조정
	B	0	0.3~0.5	외곽만 조정0.3~0.5
	C	0	0.3~0.5	외곽만 조정0.5~0.7
	D	0	0	0
	E	0	0	봉제 시 조정
	F	0	0	봉제 시 조정
	G	0	0.3~0.5	절개 후 조정 0.3~0.5
업체 패턴	이원재	-0.3	0.5	밴드따로절개 후 조정 0.3~0.5
	김영주	-0.5	0.5	0.3~0.5
	ELLE	-0.3	0.3	외곽만 조정0.5~0.7
	B · ART	-0.2	0.5	밴드따로절개 후 조정 0.3~0.5
	banila b	-0.2	0.3~0.5	밴드따로절개 후 조정 0.3~0.5
	it MICHAA	-0.3	0.5	밴드따로절개 후 조정 0.5~0.7
	SISLEY	0	0.3~0.5	밴드따로절개 후 조정 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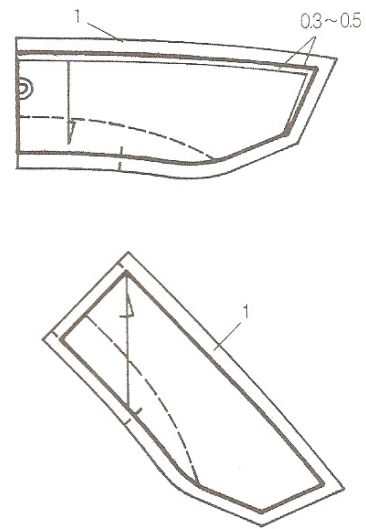
칼라를 안정감 있게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겹칼라나 안단의 시접을 대충 크게 잡아서 바느질 시에 손짐작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패턴을 미리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¹⁵⁾

<표 2>와 같이 업체 패턴의 경우 모든 업체에서 패턴을 모두 조절하고 있었으나 교육용 패턴의 경우 B, C, G에서만 겹칼라를 패턴상 으로 조절하고 있었고, A, E, F는 봉제 시 안쪽으로 접히도록 정리하면서 어긋시침해서 조정해주었고, D교재에서는 겹칼라와 안칼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용의 경우 패턴상 으로 윗칼라를 조정해주는 3권 중에 <그림 5>¹⁶⁾와 같이 외곽만 조정해 주는 경우가 2권이 있었고, G의 경우 업체와 같이 절개하여 0.3~0.5cm조정해 주었으나 밴드를 따로 제작하지는 않았다. 테일러드 칼라의 윗칼라는 칼라 너비가 클수록 목둘레 안쪽 부분이 뜨고 벌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에 뜨지 않고 편안히 놓이게 하기 위

해서 생산업체에서는 윗칼라의 일부분을 밴드로 따로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업체에서의 윗칼라와 밴드제작방법은 <그림 4>에 제시 하였다. 그 순서로는 ① 보통 칼라의 일반적인 스텐드 분량(2cm)의 너비를 절개한다. ② 칼라와 밴드 모두 옆목점 부위 네 군데 절개해서 0.2~0.4cm접는다. 접는 양은 소재에 따라 달라진다. ③ 곡선을 다시 정리하여 완성한다. 생산업체중 두 곳은 겹칼라 외곽선만 조정하였고, 나머지 다섯 업체는 칼라를 절개하여 조정하여 주었으며 칼라가 목에 편히 놓이게 하기 위해서 밴드를 따로 제작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업체들이 밑칼라가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제 시에도 의식적으로 조정한다고 답하였다.



<그림 4> 업체의 겹칼라 제작방법



<그림 5> 교육용C패턴의 겹칼라 제작방법

-의복구성학, p.184

5. 앞 · 뒷목 너비치수

본 연구에 선정된 재킷 디자인<그림 1>과 같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가슴선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 조사 대상 일부 실업업체에서는 재킷착용 시 피트니스를 주고, 칼라 꺾임선이 곡선의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목옆점 부분에 피쉬다트를 만들어주었다.

또한 업체용 패턴은 교육용 패턴과는 달리 브레이크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앞 · 뒷목너비의 차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패턴은 앞목너비와 뒷목너비치수가 모두 같게 제도 되고 있었으며, 브레이크포인트의 위치에 따라 앞목너비와 뒷목너비의 치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다. 업체에서의 칼라가 있는 재킷의 앞 · 뒷목 너비차이 치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치수의 차이는 소재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의 경우 브레이크포인트의 위치가 가슴선 보다 밑에 위치하므로 1~1.8cm정도 앞목너비가 뒷목너비보다 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업체에서는 앞목너비와 뒷목너비의 차이를 1cm에서 최대1.8cm 까지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라펠부분이 길에서 뜨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앞길의 옆목점이 뒷길의 옆목점에 당기듯 봉제되기 때문에 라펠부분은 몸에 밀착되고, 여밈단 부분은 옆선방향으로 돌아가는 실루엣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브레이크포인트에 따른 앞목너비와 뒷목너비의 차이

브레이크포인트 위치	앞 · 뒷목 너비차
가슴선 보다 긴 칼라	앞목너비 > 뒷목너비
가슴선 보다 짧은 칼라	앞목너비 = 뒷목너비
스탠드 칼라	앞목너비 < 뒷목너비

IV. 결론

본 연구는 의류제조업체와 패션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용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패턴과 제작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교육용 의복구성 교재에 나와 있는 테일러드 칼라 제도 및 봉제방법에는 의류제작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 현장과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기성복과는 제작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첫째, 생산업체의 패턴사를 대상으로 한 칼라 제작방법에 대한 조사의 결과, 윗칼라 뒷목길이와 몸판 뒷목길이의 관계에서는 7개 업체 중 6개의 업체에서 ‘윗칼라의 뒷목길이를 짧게 하여 몸판 뒷목길이 만큼 늘임’하여 주는 방식으로 칼라를 제작하고 있었다. 즉, 칼라 꺾임선 안쪽의 칼라 밑과 보이는 겉면의 칼라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룰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의류제조업체에서는 윗칼라를 뒷목길이에 맞추어 목밑둘레를 대체로 늘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위치는 목밑의 곡선이 심한 목옆부분을 잘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그 양은 소재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둘째,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걸 라펠이 되는 안단부분에 0.3~0.5cm정도의 여유를 주고 있었으며, 라펠끝을 지나 몸판 끝은 동일한 넓이로 처리하여 넘기고, 천의 두께에 따라 그 양을 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펠을 구성하는 안단의 재단은 칼라와 마찬가지로 안라펠이 되는 길과 연결된 부분은 기본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걸 라펠이 되는 안단부분은 라펠이 넘어가는데 필요한 여유분을 주어야 라펠이 잘 꺾이고 안정감이 있으며, 봉제선이 밖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육용 패턴7권 중 3권의 교재에만 안단에 0.3~0.5cm여유분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권은 봉제부분에서도 라펠의 여유량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테일러드 칼라의 윗칼라는 칼라 너비가 클수록 목둘레 안쪽 부분이 뜨고 벌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에 뜨지 않고 편안하게 놓이게 하기 위해서 생산업체에서는 윗칼라의 일부분을 밴드로 따로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업체에서의 윗칼라와 밴드제작방법은 ① 보통 칼라의 일반적인 스탠드분량(2cm)의 너비를 절개한다. ② 칼라와 밴드 모

두 옆목점부위 네 군데 절개해서 0.2~0.4cm 접는다. 접는 양은 소재에 따라 달라진다. ③ 곡선을 다시 정리하여 완성한다. 생산업체중 두 곳은 걸칼라 외 꼭선만 조정하였고, 나머지 다섯 업체는 칼라를 절개하여 조정하여 주었으며 칼라가 목에 편히 놓이게 하기 위해서 밴드를 따로 제작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업체들이 밑칼라가 밖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제 시 의식적으로 조정한다고 답하였다.

넷째, 일부 생산업체에서는 앞목너비와 뒷목너비의 차이를 1cm에서 최대 1.8cm 까지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라펠부분이 길에서 뜨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길의 옆목점이 뒷길의 옆목점에 닿기듯 봉제되기 때문에 라펠부분은 몸에 밀착되고, 여미단 부분이 옆선방향으로 돌아가는 실루엣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제작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 이론을 고찰하는데 국한하였으므로 체형, 디자인, 소재, 패션트렌드 등 테일러드 칼라의 패턴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형태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착의실험에 의한 검증 연구도 함께 잇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오설영(2006), *여성복테일러링*, 한국학술정보(주), p.13.
- 2) 임갑택(2004), *레오나르도다빈치식 분할패턴*, 경춘사, p.97.
- 3) 이영재(1996), *신사복미학*, 프럼투, p.33.
- 4) 강순희(1992), *의복의 입체구성*, 교문사, p.78.
- 5) 文化女子大學校被服構成學研究室(1987), *피복구성학 이론편*, 박혜숙(역) 경춘사, p.228.
- 6) 함연자(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53(6), pp.101-115.
- 7) 한정숙 · 류숙희(1997), "테일러드 자켓 디자인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1(8), pp.1376-1386.
- 8) 위은하 · 김옥진(1999), "테일러드 수트의 형태 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시각효과", *한국가정과학회지*, 2(1), pp.99-109.
- 9) 이보나(2005), "테일러드칼라의 패턴제도법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류숙희 · 박종희 · 김보연(2006), "중년여성의 체형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선호도",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32, pp.45-56.
- 11) 한정숙 · 류숙희(1997),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평가를 위한 의미미분 척도 개발", *복식문화연구*, 5(4), pp. 159-165.
- 12) 장세은(2006), "여성 테일러드 재킷의 소재별 패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이미숙 · 어미경 · 서미아(2006), "테일러드 재킷의 Marking 효율성에 관한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pp.310-319.
- 14) 임원자(1995), *의복구성학*, 교문사, pp.329-347.
- 김은경 · 김옥경(1999), *의복구성학*, 학문사, pp.175-189.
- 오선희(2000), *서양의복구성*, 예학사, pp.374 - 385.
- 조차 · 박채련(2000), *서양의복구성학*, 교학연구사, pp.221-228.
- 강순희 · 서미아(2002), *의복의 입체구성*, 교문사, pp.342-375.
- 이병홍 · 최영순(2002), *의복구성*, 교학연구사, pp.236-276.
- 권영자 · 권순정 · 정은아(2003), *서양 의복구성의 실제*, 미진사, pp.217-248.
- 15) 권영자 · 권순정 · 정은아, op.cit, p.226.
- 16) 김은경 · 김옥경, op.cit, p.184.

접수일(2009년 4월 24일)
수정일(1차 : 2009년 6월 4일)
게재확정일(2009년 6월 8일)